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 조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52호 [루계 제26026호] 주제 107 (2018)년 6월 1일 (금요일)

당의 령도 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로씨야련방 외무상을 접견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  
이시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우리 당파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5월 31일 백화원영빈  
관에서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 있는 로씨야  
련방 외무상 세르게이  
라브로브를 접견하시  
였다.

로씨야련방 외무성  
부상 이고리 모르굴  
로브, 우리 나라 주  
재로씨야련방 특명  
전권대사 알렉산드르  
마제고라, 로씨야련  
방 외무성 대외정책  
계획국 국장 올레그  
스체바노브, 로씨야  
련방 외무성 순회대

사 올레그 부르미스프로브, 로씨  
야련방 외무성 아시아1국 부국  
장 이고리 싸기포브가 함께 참가  
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외무상과 반갑게 상봉하시고  
따뜻한 인사를 나누신 다음  
일행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시  
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라브로브외무상과 일행의  
우리 나라 방문을 열렬히 환영



하시고 친선적인 담화를 나누시  
였다.

석상에서 라브로브외무상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보내온 로씨야련방 올라지미르 올라  
지미로비치 뿐진대통령의 친서를  
정중히 전해드리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따뜻하고 훌륭한 친서를 보내준

뿐진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하시고  
대통령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  
시였다.

담화에서는 최근 세계적인 관심  
사로 되고 있는 조선반도와 지역

의 정세흐름과 전망에 대한 조로  
최고지도부의 의사와 견해가 교환  
되었으며 두 나라 정치경제협조관

계를 더욱 확대발전시키고 긴밀히  
협력해나가기 위한 문제들이 협의

되었다.

가 안정국면에 들어선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면서 일정에 오른

조미수뇌회담과 조선반도비핵화  
실현을 위한 조선의 결심과 입장  
을 로씨야는 전적으로 지지하며  
좋은 성과를 거두기를 바란다고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라브로브외무상과 훌륭한 대화를  
나누면서 로씨야지도부의 입장과  
의중을 확인하고 새로운 정치적  
및 전략적 협상신뢰관계를 구축  
할 수 있게 된데 대하여 커다란

사이의 상봉을 실현시킬 데 대하여  
합의를 보았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라브로브외무상과 훌륭한 대화를  
나누면서 로씨야지도부의 입장과  
의중을 확인하고 새로운 정치적  
및 전략적 협상신뢰관계를 구축  
할 수 있게 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담화는 시종 친선적이며 화기애애  
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본사정치보도반



# 따사로운 해빛아래 꽂펴나는 내 조국의 미래

우리 아이들에게 더 좋은 매일, 아름다운 미래를 절처주시기 위해 현신의 도고로 바쳐 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뜨거운 사랑과 축복속에 맞는 어린이들의 국제적명절인 6·1절.

위대한 사랑속에 세상에 부러움없이 자라는 행복동물들의 밝은 웃음을 강산을 젊어지게 하고 온 나라에 활력을 더해주고 있다.

우리 어린이들을 나라의 왕으로 떠벌들며 활짝 피어나도록 보살펴 주는 어머니님의 따사로운 품이 있어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나날이 높이 울려고 있는 것이 우리 조국의 사랑찬 현실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조국을 떠나고나니 애달픈 주인공들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는 아까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에 부모의 행복이 있고 온 나라의 기쁨이 있다.

우리 인민은 누구나 네혜진 평양에 유품을 찾으시여 국제아동절을 맞는 원아들을 축복해 주시면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모습을 잊지 못하고 있다.

너무도 꿈만 같아 어쩔 줄 몰라하는 일군들과 교양원들의 손을 단정히 잡아주시며 내가 여기 와야지 어디 가겠는가고 차에에 넘친 어조로 말씀하신 경애하는 원수님.

유희실에서 저자마다 달려와 안기는 원아들을 한풀에 암으로 두며 험난한 행운을 맞았는 것을 먹었느냐고 하고 일일이 물어주시면서 아이들이 명절을 잘 쇄고 있다니 기쁘다고, 하나님께 밟게 오는 것을 보니 마음이 즐겁다고 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그날의 음성이 오늘도 온 나라 방방곡곡에 뜨겁게 메아리치는다.

정녕 우리 조국에서처럼 위대한 어버이의 보살핌속에 아이들의 웃음을 이만만히 세상에 있다.

아이들의 얼굴표정에 해당 나라는 정 치상과 함께 그 민족의 오늘과 패일이 비겼다고도 할 수 있다.

돌이켜보면 우리 혁명사에는 절세위인들의 숭고한 후대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그

얼마나 무수히 새겨져있는것인가. 간고했던 항일전의 물길속에서 이동안 원들을 환품에 애아 소년중대까지 무어 주시고 생생한 혁명가로 키우신 위대한 6·1절.

잊지 못할 그 나날의 마안산밀영이 되 새겨진다.

굶주리고 헛벗은 아이들의 정상앞에서 가슴저려움을 금지 못하시던 우리 수령님께서 품속에 고인 간직하셨던 돈 20원을 꺼내시었다. 강반석어머님께서 모친 고생속에서 한풀동포 모으신 귀중한 돈이었다. 후대들은 계급의 끝이이며 민족의 끝이며 인류의 끝이기에 이 끝을 잘 가꾸는 것은 혁명가들의 신성한 임무라고 하시던 어버이수령님의 후대원이 그 사업은 깨끗이 민족의 끝에 이 끝을 찾았던 것을. 그리고 하시고는 그들에 대해 투쟁하여야 한다고 뜻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그러시고는 그들에게 보내 주신 선물에 대해 알아보시다가 학습장에 고기 맛이 있는 학생들을 위해 끝없는 원신의 길을 걸고 걸으시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에 떠발들려 이 땅에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위대한 새 역사가 펼쳐지고 있다.

그 사업을 전해들은 우리 아이들은 행복의 흥을 품어나온다. 그들이 두불로 흐른 방울방울의 물들은 위대한 어버이의 품속에서 충정의 해바라기로 활짝 피어나는 조선의 어린이들의 비길 데 없는 행복감의 출분이었다.

아버지장군님의 그 사랑, 그 은정속에 그처럼 간고하고 시름많았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도 우리 아이들의 얼굴마다에서는 언제나 밝은 웃음이 떠날줄 몰랐다.

한평생 우리 아이들을 한풀에 암으로 인류가 일찌기 알지 못하는 미래사랑의 경지에 개척하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열파를 그대로 암으로 후대사랑의 역사를 끌어들이 수놓아가는 경애하는 원수님.

그렇게 찾으신 곳이 바로 네혜전 6·1절의 정상에 유효원이었다.

아직은 철부지아들이었건만 어느분이 자기들을 제일 사랑하시는가를 너무도 잘 알기며 그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을 아버지와 부르며 그이 품에 반기며 달려가 안기었다.

두팔을 벌리고 달콤질치는 어린이, 덤벼치다니 넘어지는 아이, 원수님의 웃자락을 잡고 놀을풀 모르는 원아들...

언제인가 한 시인이 어머니의 사랑은 아기를 품어주는 따스한 요람이라면 어버지의 사랑은 그 험난하게 떠도는 혼후온 온기라고 쓴적이 있다.

마따하고 다심한 어머니의 사랑도 한계가 있고 용심깊고 강렬한 어버지의 정도 미치지 못하는 구식이 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울이시는

기회에 자신께서는 그들을 보면서 너희들이 있어 우리가 있고 우리가 있어 너희들이 있다고 생각하며 힘을 얻었다고, 우리 어린이들과 학생들은 볼수록 대전하고 자랑스럽다고, 우리는 미래를 위하여 투쟁하여야 한다고 뜻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그러시고는 그들에게 보내

경애하는 원수님의 뜨거운 정이야말로 이 세상 그 어느 아버지, 어머니도 충수 없는 위대한 사랑이며 이 땅의 아버지와 어머니들의 사랑을 다 합친것보다 더 숭고하고 열렬한 어버이사랑인것이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높아온 온 나라가 밟아진다고, 아이들을 털랄만 한 부족함이 없이 키우려는것이 당의 결심이라고 하시며 조국의 미래를 위해 끝없는 원신의 길을 걸고 걸으시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에 떠발들려 이 땅에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위대한 새 역사가 펼쳐지고 있다.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에 가면 어린이 식료품을 더 많이 생산하여 어린이들에게 공급하는것으로서 우리가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어떻게 지키는가, 사회주의를 어떻게 고수하는가 하는것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풍요로운 일상이다.

아버지장군님의 그 사랑, 그 은정속에 그처럼 간고하고 시름많았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도 우리 아이들의 얼굴마다에서는 언제나 밝은 웃음이 떠날줄 몰랐다.

한평생 우리 아이들을 한풀에 암으로 인류가 일찌기 알지 못하는 미래사랑의 경지에 개척하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열파를 그대로 암으로 후대사랑의 역사를 끌어들이 수놓아가는 경애하는 원수님.

그렇게 찾으신 곳이 바로 네혜전 6·1절의 정상에 유효원이었다.

아직은 철부지아들이었건만 어느분이 자기들을 제일 사랑하시는가를 너무도 잘 알기며 그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을 아버지와 부르며 그이 품에 반기며 달려가 안기었다.

두팔을 벌리고 달콤질치는 어린이, 덤벼치다니 넘어지는 아이, 원수님의 웃자락을 잡고 놀을풀 모르는 원아들...

언제인가 한 시인이 어머니의 사랑은 아기를 품어주는 따스한 요람이라면 어버지의 사랑은 그 험난하게 떠도는 혼후온 온기라고 쓴적이 있다.

마따하고 다심한 어머니의 사랑도 한계가 있고 용심깊고 강렬한 어버지의 정도 미치지 못하는 구식이 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울이시는

혁명이자 신념이고 신념이자 혁명이다. 이는 간고한 혁명의 길을 헤치며 조선의 혁명가들이 제독한 고귀한 전진이다.

원주에게 두눈을 빼앗기고도 혁명의 승리가 보인다고 소리 높이 웨친 최희숙동지, 모진 고문속에서도 혁명의 사령부의 안전을 위해 스스로 허를 끊은 미동원, 항일혁명의 날을 라관하며 무던 양철들로 색을 하시였다.

『죽어도 살아도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하여 만난을 헤치며 싸워 승리한 항일혁명선열들의 흘승의 신념과 물결의 기개가 오늘 우리 천만군민의 심장마다에 그대로 막바쳐야 합니다.』

항일혁명투사들이 지냈던 혁명적신념과 정신은 고구려나무의 글발로 헤치며 고상한 사상정신 세계이다.

일찌기 위대한 장군께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항일혁명제를 통해 받은 우리 인민은 백두산칠세위인들을 따르는 길에는 오직 승리만이 있다다는 철석의 신념으로 참으로 성스러운 혁명의 힘을 아로새기였다.

역사에 기록된 위인들중에는 후대들에 대한 사랑을 미덕으로 어려운 위인들도 적지 않다. 하지만 온 나라 아이들의 친부모가 되시여 보살펴주시고 일광을 뜨겁게 쭉 복해 주시는 우리 원수님의 비길수 없다.

승고한 후대사랑을 대를 이어 받아안으면서 나라의 왕으로 떠발들리우는 이나라 어린이들이처럼 해방한 어린이들은 그 어디에도 없다는 뜨거운 걱정을 더욱 금할수 없게 하는 이들의 명절이다.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어린이들의 그림자인 그의 품속에서 제일 사랑하시는 원수님의 품속에서 세상에 부려운것없이 마음껏 행복을 누리는 우리 아이들의 최대의 자랑이다.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어린이들의 그림자인 그의 품속에서 제일 사랑하시는 원수님의 품속에서 세상에 부려운것없이 마음껏 행복을 누리는 우리 아이들의 최대의 자랑이다.

어느하나도 떠발들리우는 이나라 어린이들이처럼 해방한 어린이들은 그 어디에도 없다는 뜨거운 걱정을 더욱 금할수 없게 하는 이들의 명절이다.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어린이들의 그림자인 그의 품속에서 제일 사랑하시는 원수님의 품속에서 세상에 부려운것없이 마음껏 행복을 누리는 우리 아이들의 최대의 자랑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원수님의 품속에서 제일 사랑하시는 원수님의 품속에서 세상에 부려운것없이 마음껏 행복을 누리는 우리 아이들의 최대의 자랑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원수님의 품속에서 제일 사랑하시는 원수님의 품속에서 세상에 부려운것없이 마음껏 행복을 누리는 우리 아이들의 최대의 자랑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원수님의 품속에서 제일 사랑하시는 원수님의 품속에서 세상에 부려운것없이 마음껏 행복을 누리는 우리 아이들의 최대의 자랑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원수님의 품속에서 제일 사랑하시는 원수님의 품속에서 세상에 부려운것없이 마음껏 행복을 누리는 우리 아이들의 최대의 자랑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원수님의 품속에서 제일 사랑하시는 원수님의 품속에서 세상에 부려운것없이 마음껏 행복을 누리는 우리 아이들의 최대의 자랑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원수님의 품속에서 제일 사랑하시는 원수님의 품속에서 세상에 부려운것없이 마음껏 행복을 누리는 우리 아이들의 최대의 자랑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원수님의 품속에서 제일 사랑하시는 원수님의 품속에서 세상에 부려운것없이 마음껏 행복을 누리는 우리 아이들의 최대의 자랑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원수님의 품속에서 제일 사랑하시는 원수님의 품속에서 세상에 부려운것없이 마음껏 행복을 누리는 우리 아이들의 최대의 자랑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원수님의 품속에서 제일 사랑하시는 원수님의 품속에서 세상에 부려운것없이 마음껏 행복을 누리는 우리 아이들의 최대의 자랑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원수님의 품속에서 제일 사랑하시는 원수님의 품속에서 세상에 부려운것없이 마음껏 행복을 누리는 우리 아이들의 최대의 자랑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원수님의 품속에서 제일 사랑하시는 원수님의 품속에서 세상에 부려운것없이 마음껏 행복을 누리는 우리 아이들의 최대의 자랑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원수님의 품속에서 제일 사랑하시는 원수님의 품속에서 세상에 부려운것없이 마음껏 행복을 누리는 우리 아이들의 최대의 자랑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원수님의 품속에서 제일 사랑하시는 원수님의 품속에서 세상에 부려운것없이 마음껏 행복을 누리는 우리 아이들의 최대의 자랑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원수님의 품속에서 제일 사랑하시는 원수님의 품속에서 세상에 부려운것없이 마음껏 행복을 누리는 우리 아이들의 최대의 자랑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원수님의 품속에서 제일 사랑하시는 원수님의 품속에서 세상에 부려운것없이 마음껏 행복을 누리는 우리 아이들의 최대의 자랑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원수님의 품속에서 제일 사랑하시는 원수님의 품속에서 세상에 부려운것없이 마음껏 행복을 누리는 우리 아이들의 최대의 자랑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원수님의 품속에서 제일 사랑하시는 원수님의 품속에서 세상에 부려운것없이 마음껏 행복을 누리는 우리 아이들의 최대의 자랑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원수님의 품속에서 제일 사랑하시는 원수님의 품속에서 세상에 부려운것없이 마음껏 행복을 누리는 우리 아이들의 최대의 자랑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원수님의 품속에서 제일 사랑하시는 원수님의 품속에서 세상에 부려운것없이 마음껏 행복을 누리는 우리 아이들의 최대의 자랑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원수님의 품속에서 제일 사랑하시는 원수님의 품속에서 세상에 부려운것없이 마음껏 행복을 누리는 우리 아이들의 최대의 자랑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원수님의 품속에서 제일 사랑하시는 원수님의 품속에서 세상에 부려운것없이 마음껏 행복을 누리는 우리 아이들의 최대의 자랑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원수님의 품속에서 제일 사랑하시는 원수님의 품속에서 세상에 부려운것없이 마음껏 행복을 누리는 우리 아이들의 최대의 자랑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원수님의 품속에서 제일 사랑하시는 원수님의 품속에서 세상에 부려운것없이 마음껏 행복을 누리는 우리 아이들의 최대의 자랑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원수님의 품속에서 제일 사랑하시는 원수님의 품속에서 세상에 부려운것없이 마음껏 행복을 누리는 우리 아이들의 최대의 자랑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원수님의 품속에서 제일 사랑하시는 원수님의 품속에서 세상에 부려운것없이 마음껏 행복을 누리는 우리 아이들의 최대의 자랑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원수님의 품속에서 제일 사랑하시는 원수님의 품속에서 세상에 부려운것없이 마음껏 행복을 누리는 우리 아이들의 최대의 자랑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원수님의 품속에서 제일 사랑하시는 원수님의 품속에서 세상에 부려운것없이 마음껏 행복을 누리는 우리 아이들의 최대의 자랑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원수님의 품속에서 제일 사랑하시는 원수님의 품속에서 세상에 부려운것없이 마음껏 행복을 누리는 우리 아이들의 최대의 자랑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원수님의 품속에서 제일 사랑하시는 원수님의 품속에서 세상에 부려운것없이 마음껏 행복을 누리는 우리 아이들의 최대의 자랑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원수님의 품속에서 제일 사랑하시는 원수님의 품속에서 세상에 부려운것없이 마음껏 행복을 누리는 우리 아이들의 최대의 자랑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원수님의 품속에서 제일 사랑하시는 원수님의 품속에서 세상에 부려운것없이 마음껏 행복을 누리는 우리 아이들의 최대의 자랑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원수님의 품속에서 제일 사랑하시는 원수님의 품속에서 세상에 부려운것없이 마음껏 행복을 누리는 우리 아이들의 최대의 자랑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원수님의 품속에서 제일 사랑하시는 원수님의 품속에서 세상에 부려운것없이 마음껏 행복을 누리는 우리 아이들의 최대의 자랑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원수님의 품속에서 제일 사랑하시는 원수님의 품속에서 세상에 부려운것없이 마음껏 행복을 누리는 우리 아이들의 최대의 자랑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원수님의 품속에서 제일 사랑하시는 원수님의 품속에서 세상에 부려운것없이 마음껏 행복을 누리는 우리 아이들의 최대의 자랑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원수님의 품속에서 제일 사랑하시는 원수님의 품속에서 세상에 부려운것없이 마음껏 행복을 누리는 우리 아이들의 최대의 자랑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원수님의 품속에서 제일 사랑하시는 원수님의 품속에서 세상에 부려운것없이 마음껏 행복을 누리는 우리 아이들의 최대의 자랑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원수님의

# 당조직들은 화선식정치사업으로 모내기전투장들이 부글부글 끓게 하자

## 전투승리의 열쇠를 어디서 찾았는가

황주군에서 모내기가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다.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同志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포전당당책임제를 당의 이도에 맞게 실시하여 농업근로자들의 책임성과 생산의욕을 높여나가도록 하여야

대중의 열의는

지난 5월 중순 모내기의 성과적보장을 위한 군당집행위원회 확대회의가 진행되었다.

김성삼군당위원장은 포전당당책임제의 위력을 남김없이 발양시키는데 중심을 두고 모내기전투에 대한 당적지도를 실속있게 짜고들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한해 전에 군당책임일군으로 임명된 그는 군당동농장을 협력을 포전당당책임제의 위력을 남김없이 발양시키는데 집중하도록 하였다.

일군들이 담당한 농장에 나가

실지 투전을 나누는 농업근로자

들의 생활속에 깊이 들어가도록 하였다. 화선식정치

사업을 한번 하여도 투전에 대

### 황주군당위원회 일군들의 사업에서

합니다.』

한마디로 적어말한다면 군당위원회 일군들이 분조판례 제안에서 포전당당책임제의 위력을 남김없이 발양시키는 것을 모내기 전투 승리의 열쇠로 끌어 쥐고나가는 데 있다.

### 곧 질이며 속도

쇠가 있다. 대중의 열의는 끝 질이며 속도이다.

군당책임일군은 이런 확고한 판점밑에 모내기전투와 관련한 당정책사업의 협력을 포전당당책임제의 위력을 남김없이 발양시키는데 집중하도록 하였다.

일군들이 담당한 농장에 나가

실지 투전을 나누는 농업근로자

들의 생활속에 깊이 들어가도록 하였다. 화선식정치

사업을 한번 하여도 투전에 대

화선식과학기술로 담보된다

군당위원회가 힘을 넣은 다른 측면은 포전당당책임제에서 책임이라는 두 글자를 선진과학기술로

솔로 담보하도록 적극 떠밀어나

간것이다.

모내기전투에 대한 당적지도

를 심화시켜나가는 과정에 군당

위원회에서는 당면한 모내기전

투와 선진영농기술도입을 보다

한 강렬한 애착심을 심어주는데

파녁을 두고 활신하게 전쟁하도록 하였다. 모든 농장의 일군들이

『나를 따라 앞으로!』의 구

령을 위치하면서 이신작적의 모범

으로 농업근로자들을 힘있게 이끌어나가도록 하였다. 농업근로자들은

자들하고 상간에 서로 듣고 이끄는

집단주의적미풍이 높이 발양되도록 하기 위한 사업도 따라세

았다. 모내기전투에 대한 대중의 판

점이 달라졌다. 농업근로자들은

담당당포전의 모내기기를 절적으로

제때에 끌어는 것이 분분, 작업

반나아가서 농장의 모내기전투

성과로 이어진다는 것을 깊이 자각하게 되었다. 해마다 모내기

전투에서 위험에 처지던 단위를

소리치며 실적을 냈다. 그에 따라 군적인 모내기전투실적을 높여올 정도로 뛰어들었다.

모내기전투에 대한 당적지도

를 심화시켜나가는 과정에 군당

위원회에서는 이를 극복하는

에서 군당동농장경영위원회의

법을 배우고 적극 받아들이기 위

한 사업에서 따라앞서기, 따라배

우기운동, 경협교환운동의 불길

이 세차게 타번지도록 하였다.

경영위원회 해당부서 일군대

련을 현대과학기술을 소유한 생

생한 대학졸업생들로 더욱 들품

히 꾸려주었다. 경영위원회에서

농장별 모내기전투실적과 함께

농업근로자들에게 힘있게 이끌어나가도록 하였다. 농업근로자들은

자들하고 상간에 서로 듣고 이끄는

집단주의적미풍이 높이 발양되도록 하기 위한 사업도 따라세

았다. 모내기전투에 대한 대중의 판

점이 달라졌다. 농업근로자들은

담당당포전의 모내기기를 절적으로

제때에 끌어는 것이 분분, 작업

반나아가서 농장의 모내기전투

성과로 이어진다는 것을 깊이 자각하게 되었다. 해마다 모내기

전투에서 위험에 처지던 단위를

소리치며 실적을 냈다. 그에 따라

군적인 모내기전투실적을 높여올 정도로 뛰어들었다.

모내기전투에 대한 당적지도

를 심화시켜나가는 과정에 군당

위원회에서는 이를 극복하는

에서 군당동농장경영위원회의

법을 배우고 적극 받아들이기 위

한 사업에서 따라앞서기, 따라배

우기운동, 경협교환운동의 불길

이 세차게 타번지도록 하였다.

경영위원회 해당부서 일군대

련을 현대과학기술을 소유한 생

생한 대학졸업생들로 더욱 들품

히 꾸려주었다. 경영위원회에서

농장별 모내기전투실적과 함께

농업근로자들에게 힘있게 이끌어나가도록 하였다. 농업근로자들은

자들하고 상간에 서로 듣고 이끄는

집단주의적미풍이 높이 발양되도록 하기 위한 사업도 따라세

았다. 모내기전투에 대한 대중의 판

점이 달라졌다. 농업근로자들은

담당당포전의 모내기기를 절적으로

제때에 끌어는 것이 분분, 작업

반나아가서 농장의 모내기전투

성과로 이어진다는 것을 깊이 자각하게 되었다. 해마다 모내기

전투에서 위험에 처지던 단위를

소리치며 실적을 냈다. 그에 따라

군적인 모내기전투실적을 높여올 정도로 뛰어들었다.

모내기전투에 대한 당적지도

를 심화시켜나가는 과정에 군당

위원회에서는 이를 극복하는

에서 군당동농장경영위원회의

법을 배우고 적극 받아들이기 위

한 사업에서 따라앞서기, 따라배

우기운동, 경협교환운동의 불길

이 세차게 타번지도록 하였다.

경영위원회 해당부서 일군대

련을 현대과학기술을 소유한 생

생한 대학졸업생들로 더욱 들품

히 꾸려주었다. 경영위원회에서

농장별 모내기전투실적과 함께

농업근로자들에게 힘있게 이끌어나가도록 하였다. 농업근로자들은

자들하고 상간에 서로 듣고 이끄는

집단주의적미풍이 높이 발양되도록 하기 위한 사업도 따라세

았다. 모내기전투에 대한 대중의 판

점이 달라졌다. 농업근로자들은

담당당포전의 모내기기를 절적으로

제때에 끌어는 것이 분분, 작업

반나아가서 농장의 모내기전투

성과로 이어진다는 것을 깊이 자각하게 되었다. 해마다 모내기

전투에서 위험에 처지던 단위를

소리치며 실적을 냈다. 그에 따라

군적인 모내기전투실적을 높여올 정도로 뛰어들었다.

모내기전투에 대한 당적지도

를 심화시켜나가는 과정에 군당

위원회에서는 이를 극복하는

에서 군당동농장경영위원회의

법을 배우고 적극 받아들이기 위

한 사업에서 따라앞서기, 따라배

우기운동, 경협교환운동의 불길

이 세차게 타번지도록 하였다.

경영위원회 해당부서 일군대

련을 현대과학기술을 소유한 생

생한 대학졸업생들로 더욱 들품

히 꾸려주었다. 경영위원회에서

농장별 모내기전투실적과 함께

농업근로자들에게 힘있게 이끌어나가도록 하였다. 농업근로자들은

자들하고 상간에 서로 듣고 이끄는

집단주의적미풍이 높이 발양되도록 하기 위한 사업도 따라세

았다. 모내기전투에 대한 대중의 판

점이 달라졌다. 농업근로자들은

담당당포전의 모내기기를 절적으로

제때에 끌어는 것이 분분, 작업

반나아가서 농장의 모내기전투

성과로 이어진다는 것을 깊이 자각하게 되었다. 해마다 모내기

전투에서 위험에 처지던 단위를

소리치며 실적을 냈다. 그에 따라

군적인 모내기전투실적을 높여올 정도로 뛰어들었다.

모내기전투에 대한 당적지도

를 심화시켜나가는 과정에 군당

위원회에서는 이를 극복하는

에서 군당동농장경영위원회의

법을 배우고 적극 받아들이기 위

한 사업에서 따라앞서기, 따라배





## 자주시대의 영원한 등대를 마련해주신 인류의 태양

수령의 위대성은 곧 업적의 위대성이며 위인에 대한 존경과 신뢰는 그 업적의 위대성에 대한 평가로 부터 우러나온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同志께서는 그 어느 위인도 따를 수 없는 역사적 업적을 이룩하시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훌륭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영생 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신 것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同志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수령님께서 창시하시고 혁명실현에 빛나게 구현하신 주체사상은 우리 혁명의 영원한 습리의 기지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사상을 창시하신 후에 세계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벌여나온다. 그 운명은 자주적으로 개척하여올 수 있었다. 세월이 흘러 수주체사상의 위대성과 생명력을 더욱 빛내고 있다.

주체사상은 오늘도 시대에 즐기자면 전진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으로 되고 있으며 자주시대의 리창판, 불멸의 가치로 세계 진보인류의 심장을 억세게 풀어놓고 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주체사상 연구소들이 성장되고 있으며 주체사상을 연구보급하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이 벌어지고 있다.

그속에는 주체사상연구소 사무국장인 오가미 쟁이 있다.

현재 그는 병마에 시달리며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고 생각하고 손에 수술칼을 잡을 결

심을 굳혔다. 대학에서 의학을 배우는 과정에 그는 하니의 진리를 체득하게 되었다. 놀라운 사람들을 꾀롭히는 사회악이며 그것은 수술칼이나 그 어떤 악으로도 고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인간의 존엄성을 짚고 근로인민에게 꾀롭히는 사회악을 없앨 방도를 찾는데 심신을 바치기도 하였다. 고전 철학에 파묻혀 밤을 새우기도 하였고 학생 운동에 나서기도 하였다.

그러던 중 한 동료로부터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게 되었다. 일봉에서 출판된 『김 일성 전』을 봤을 때 들판을 헤친 듯 했고 그는

수령님을 만나뵙는 영광을 지닌다.

그는 정직적인 사람의 활동을 벌여나가면서 그는 우리 나라를 다시 방문하여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뵙는 영광을 더워 깊이 새기게 되었다.

우리 나라를 방문하여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뵙는 영광을 지닌 그는 정직적인 사람의 활동을 벌여나가면서 그는 우리 나라를 다시 방문하여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뵙는 영광을 더워 깊이 새기게 되었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다짐없는 흠토를 담아낸 자기의 글에서 이렇게 펴려하였다.

『주체의 역사의 무게는 장구한 인류역사가 다 알지 못하는 위인 중의 위인 이 신길 일성주석의 위대성과 업적의 무게이다.』

주체사상에 매혹되어 위대한 수령님을 열렬히 경모하고 신뢰한 사람들은 이들만이 아닙니다.

어느 한 나라 대학총장은 『지침과 지례』를 주면 지구를 들겠다고 말한 아르크메스의 표현을 빙자해나가면서 그의 활동을 칭찬하고 살았다.

그는 인류사의 갈피를 헤쳐보며 역사에 배출될 수 많은 위인들 속에서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위인을 찾아보고자 했다.

자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공헌한 위인도 있고 인류의 문명발전을 위해 뛰어난 공적을 남긴 위인도 있다. 그러나

만일의 대화 없는 경모와 칭송을 받는 그런 결출한 위인은 찾아

볼수 없었다. 그러던 그의 마음을 들어잡은 것은 주체사상이었다.

그 어디에서도 아볼수 없었던 가장 과학적이며 진보적인 인사상, 인류사상의 최고봉을 이루고 자주시대를 대표하는 주체사상에 접하게 된 그는

위대한 수령님의 뛰어난 사상의 본질적 차이와 불멸의 업적에서 크

나쁜 경명을 받게 되었다.

우리 나라를 방문하여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뵙는 영광을 지닌 그는 정직적인 사람의 활동을 벌여나가면서 그는 우리 나라를 다시 방문하여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뵙는 영광을 더워 깊이 새기게 되었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다짐없는 흠토를 담아낸 자기의 글에서 이렇게 펴려하였다.

『주체의 역사의 무게는 장구한 인류역사가 다 알지 못하는 위인 중의 위인 이 신길 일성주석의 위대성과 업적의 무게이다.』

주체사상에 매혹되어 위대한

수령님을 열렬히 경모하고 신뢰한 사람들은 이들만이 아닙니다.

어느 한 나라 대학총장은 『지침과 지례』를 주면 지구를 들겠

다고 말한 아르크메스의 표현을 빙자해나가면서 그의 활동을 칭찬하고 살았다.

그는 인류사의 갈피를 헤쳐보며 역사에 배출될 수 많은 위인들 속에서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위인을 찾아보고자 했다.

그는 『김 일성 전』을 봤을 때 들판을 헤친 듯 했고 그때부터

수령님을 만나뵙는 영광을 더워 깊이 새기게 되었다.

그는 『김 일성 전』을 봤을 때 들판을 헤친 듯 했고 그때부터

수령님을 만나뵙는 영광을 더워 깊이 새기게 되었다.

그는 『김 일성 전』을 봤을 때 들판을 헤친 듯 했고 그때부터

수령님을 만나뵙는 영광을 더워 깊이 새기게 되었다.

그는 『김 일성 전』을 봤을 때 들판을 헤친 듯 했고 그때부터

수령님을 만나뵙는 영광을 더워 깊이 새기게 되었다.

그는 『김 일성 전』을 봤을 때 들판을 헤친 듯 했고 그때부터

수령님을 만나뵙는 영광을 더워 깊이 새기게 되었다.

그는 『김 일성 전』을 봤을 때 들판을 헤친 듯 했고 그때부터

수령님을 만나뵙는 영광을 더워 깊이 새기게 되었다.

그는 『김 일성 전』을 봤을 때 들판을 헤친 듯 했고 그때부터

수령님을 만나뵙는 영광을 더워 깊이 새기게 되었다.

그는 『김 일성 전』을 봤을 때 들판을 헤친 듯 했고 그때부터

수령님을 만나뵙는 영광을 더워 깊이 새기게 되었다.

그는 『김 일성 전』을 봤을 때 들판을 헤친 듯 했고 그때부터

수령님을 만나뵙는 영광을 더워 깊이 새기게 되었다.

그는 『김 일성 전』을 봤을 때 들판을 헤친 듯 했고 그때부터

수령님을 만나뵙는 영광을 더워 깊이 새기게 되었다.

그는 『김 일성 전』을 봤을 때 들판을 헤친 듯 했고 그때부터

수령님을 만나뵙는 영광을 더워 깊이 새기게 되었다.

그는 『김 일성 전』을 봤을 때 들판을 헤친 듯 했고 그때부터

수령님을 만나뵙는 영광을 더워 깊이 새기게 되었다.

그는 『김 일성 전』을 봤을 때 들판을 헤친 듯 했고 그때부터

수령님을 만나뵙는 영광을 더워 깊이 새기게 되었다.

그는 『김 일성 전』을 봤을 때 들판을 헤친 듯 했고 그때부터

수령님을 만나뵙는 영광을 더워 깊이 새기게 되었다.

그는 『김 일성 전』을 봤을 때 들판을 헤친 듯 했고 그때부터

수령님을 만나뵙는 영광을 더워 깊이 새기게 되었다.

그는 『김 일성 전』을 봤을 때 들판을 헤친 듯 했고 그때부터

수령님을 만나뵙는 영광을 더워 깊이 새기게 되었다.

그는 『김 일성 전』을 봤을 때 들판을 헤친 듯 했고 그때부터

수령님을 만나뵙는 영광을 더워 깊이 새기게 되었다.

그는 『김 일성 전』을 봤을 때 들판을 헤친 듯 했고 그때부터

수령님을 만나뵙는 영광을 더워 깊이 새기게 되었다.

그는 『김 일성 전』을 봤을 때 들판을 헤친 듯 했고 그때부터

수령님을 만나뵙는 영광을 더워 깊이 새기게 되었다.

그는 『김 일성 전』을 봤을 때 들판을 헤친 듯 했고 그때부터

수령님을 만나뵙는 영광을 더워 깊이 새기게 되었다.

그는 『김 일성 전』을 봤을 때 들판을 헤친 듯 했고 그때부터

수령님을 만나뵙는 영광을 더워 깊이 새기게 되었다.

그는 『김 일성 전』을 봤을 때 들판을 헤친 듯 했고 그때부터

수령님을 만나뵙는 영광을 더워 깊이 새기게 되었다.

그는 『김 일성 전』을 봤을 때 들판을 헤친 듯 했고 그때부터

수령님을 만나뵙는 영광을 더워 깊이 새기게 되었다.

그는 『김 일성 전』을 봤을 때 들판을 헤친 듯 했고 그때부터

수령님을 만나뵙는 영광을 더워 깊이 새기게 되었다.

그는 『김 일성 전』을 봤을 때 들판을 헤친 듯 했고 그때부터

수령님을 만나뵙는 영광을 더워 깊이 새기게 되었다.

그는 『김 일성 전』을 봤을 때 들판을 헤친 듯 했고 그때부터

수령님을 만나뵙는 영광을 더워 깊이 새기게 되었다.

그는 『김 일성 전』을 봤을 때 들판을 헤친 듯 했고 그때부터

수령님을 만나뵙는 영광을 더워 깊이 새기게 되었다.

그는 『김 일성 전』을 봤을 때 들판을 헤친 듯 했고 그때부터

수령님을 만나뵙는 영광을 더워 깊이 새기게 되었다.

그는 『김 일성 전』을 봤을 때 들판을 헤친 듯 했고 그때부터

수령님을 만나뵙는 영광을 더워 깊이 새기게 되었다.

그는 『김 일성 전』을 봤을 때 들판을 헤친 듯 했고 그때부터

수령님을 만나뵙는 영광을 더워 깊이 새기게 되었다.

그는 『김 일성 전』을 봤을 때 들판을 헤친 듯 했고 그때부터

수령님을 만나뵙는 영광을 더워 깊이 새기게 되었다.

그는 『김 일성 전』을 봤을 때 들판을 헤친 듯 했고 그때부터

수령님을 만나뵙는 영광을 더워 깊이 새기게 되었다.

그는 『김 일성 전』을 봤을 때 들판을 헤친 듯 했고 그때부터

수령님을 만나뵙는 영광을 더워 깊이 새기게 되었다.

그는 『김 일성 전』을 봤을 때 들판을 헤친 듯 했고 그때부터

수령님을 만나뵙는 영광을 더워 깊이 새기게 되었다.

그는 『김 일성 전』을 봤을 때 들판을 헤친 듯 했고 그때부터

수령님을 만나뵙는 영광을 더워 깊이 새기게 되었다.

그는 『김 일성 전』을 봤을 때 들판을 헤친 듯 했고 그때부터

수령님을 만나뵙는 영광을 더워 깊이 새기게 되었다.

그는 『김 일성 전』을 봤을 때 들판을 헤친 듯 했고 그때부터

수령님을 만나뵙는 영광을 더워 깊이 새기게 되었다.

그는 『김 일성 전』을 봤을 때 들판을 헤친 듯 했고 그때부터

수령님을 만나뵙는 영광을 더워 깊이 새기게 되었다.

그는 『김 일성 전』을 봤을 때 들판을 헤친 듯 했고 그때부터

수령님을 만나뵙는 영광을 더워 깊이 새기게 되었다.

그는 『김 일성 전』을 봤을 때 들판을 헤친 듯 했고 그때부터

수령님을 만나뵙는 영광을 더워 깊이 새기게 되었다.